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특징 분석

고상원*

〈 목 차 〉

1. 서 론
2. 제조업내의 구조조정과 고용성장률
3. 상이한 분류법에 따른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분석
4. 요약 및 결어

1. 서 론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의 해결은 IMF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고용창출능력 배양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고용창출이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IMF체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생산성을 제고시킬 적극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조업내의 구조변화의 정도와 고용증가율의 관계와 고용구조변화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우선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구성적 구조조정지수(The Compositional Change index in value added)와 고용증가율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구조변화의 속도와 고용증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 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을 기술수준, 특화성향, 임금수준, 생산직 인력의 비율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고용변화를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별 구조변화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197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특징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분석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잠재력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온 현상을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보상임금이론(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노동조합의 위협효과(union threat effect), 대기실업가설(wait unemployment theory), 독과점 시장 가설 등의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본 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벌이진 주요한 이유를 제조업내 열악한 부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부터 파악하였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구조조정과 고용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를 국제비교 및 기업규모별 특징 비교를 통해 분석한 후, 제4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제조업내의 구조조정과 고용성장률

구조적 실업은 구조변화에 노동력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정부문에 대한 노동수요는 늘고, 다른 특정부문에 대한 노동의 수요는 감소할 때 노동자들이 공급이 과다한 부문에서 수요가 과다한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력은 교육수준, 숙련도, 연령, 인종 등의 점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부문간의 이동은 그리 쉽지 않다. 부문간 노동력의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더 크다.

급격한 구조변화는 노동력이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조변화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통한 생산극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변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속도가 빠른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선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구조조정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노동력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만 구조적 실업의 위험을 줄이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불변가격으로 표시된 제조업의 총부가가치에서 중분류된 제조업의 각 부문이 차지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증감비율의 절대치를 합산하여 이를 부문수로 나눈 것을 구성적 구조조정지수(The Index of Compositional Structural Change)라고 부르며, 이는 제조업내의 구조조정을 측정하는 간단한 지표로 사용된다. 구성적 구조조정지수의 산출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C^{t} = \frac{\sum_{i=1}^{8} | R_{3i}^{t} - R_{3i}^{b}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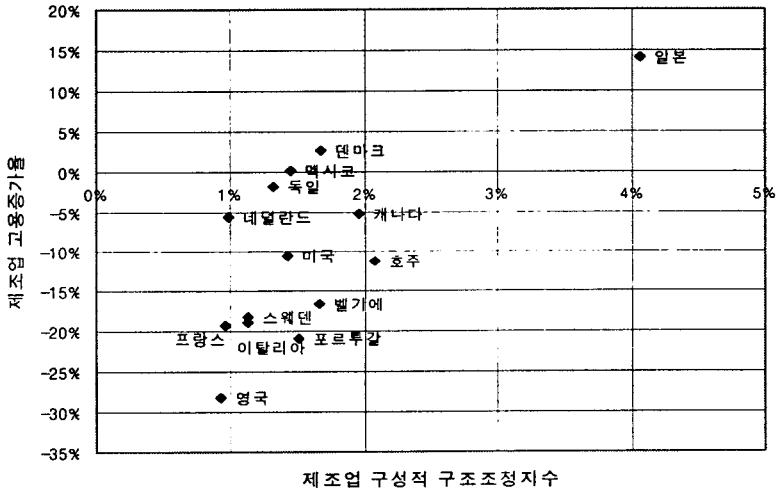
SC^{t} : 제조업내 구성적 구조조정지수

R_{i}^{t} : t기(비교 년도)의 3i산업의 제조업내 부가가치의 비중

R_{i}^{b} : b기(기준 년도)의 3i산업의 제조업내 부가가치의 비중

제조업 중분류가 9개 부문으로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8개 부문만의 변화를 보는 것은 8개 부문에 대한 변화가 나머지 1개 부문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지수가 1이면 제조업내의 완전한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0인 경우는 전혀 구조조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구성적 구조조정지수와 고용성장률의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 198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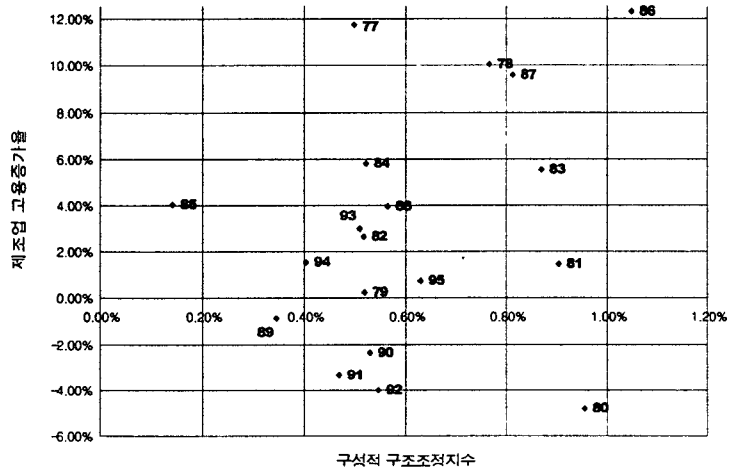


자료 : OECD(1995), The OECD Stan Database For Industrial Analysis 1974-1993로부터 계산

〈그림 1〉은 OECD 회원국 중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의 14개 국가에서의 1980년부터 1992년간 구조조정지수와 제조업 고용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제조업내에서 구조조정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비교적 제조업 고용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동 기간중 가장 높은 제조업 고용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인데, 구성적 구조조정지수로 살펴본 제조업내 구조조정의 정도도 일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중 제조업내 구조조정이 가장 더디었던 영국에서 제조업 고용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신속한 구조변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고용의 창출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동기간 동안 제조업의 구성적 구조조정지수는 5.3%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제조업 고용성장률도 11.2%로 일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 한국 제조업의 구성적 구조조정 지수와 고용성장률



자료 : 전게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성적 구조조정지수가 높았던 해의 고용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2〉는 1976년부터 1995년 사이의 구성적 구조조정지수와 제조업 고용성장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구성적 구조조정지수가 높은 해의 제조업 고용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1980년과 1990년의 경우와 같은 불황기의 급격한 구조변화는 고용의 감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구조조정지수와 고용증가율과의 뚜렷한 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국가간 비교에서 보았듯이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고용증가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상이한 분류법에 따른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분석

3.1.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구조변화의 정도와 고용증가율의 관계보다는 고용구조변화의 성격이 중요하다. 고부가가

치 부문, 고임금 부문, 첨단기술 부문의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가 고용증가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OECD(1992)는 제조업을 기술수준, 특화성향, 임금수준, 요구기술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표 1〉에서부터 〈표 4〉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개발투자 집약도에 따른 기술수준별 제조업분류

기술수준별 분류	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첨단기술제조업	항공(3845), 컴퓨터 사무기기 제조업(3825), 반도체 및 통신기기 제조업(3834, 383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383-3832-3834), 의약품 제조업(3522), 의료·광학·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385)
중간기술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 제조업(351+352-35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355+356), 비철금속산업(372), 전기제외 기계제조업(382-3825), 자동차 제조업(3843), 기타 수송기계 제조(3842+3844+3849), 기타 제조업(39)
하위기술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31), 섬유·의복 및 가죽(3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33),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34), 석유정제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353+354), 철강산업(37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381), 조선(3841)

자료 : OECD(1992),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Annual Review, Paris.
단, 괄호 안의 숫자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구기준에 의한 산업별 Code임

〈표 2〉 특화성향에 따른 제조업 분류

특화성향별 분류	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자원집약적 산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3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3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과 고무제품제조업(353+35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제외(36). 비철금속산업(372)
노동집약적 산업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32),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381), 기타 제조업(39).
공급특화적 산업 (자본재, 중간재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조립 제조업을 제외한 기계제조업, 전기제외(382-3825),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383-383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및 반도체(3832)
규모집약적 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33), 의약품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용화합물제조업과 기타 화학제품제조업(352+351-3522), 고무제품제조업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 제품제조업(355+356), 철강산업(371), 선박건조 및 수선업(3841). 자동차제조업(3843), 철도 장비 제조업과 모우터사이클 및 자전거제조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제조업(3842+3844+3849).
과학기반적 산업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384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3825), 의약품제조업(3522),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385)

자료 : 전게서

〈표 3〉 임금수준에 따른 제조업 분류

임금수준별 분류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고임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용화합물제조업과 기타 화학제품제조업(352+351-3522).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3845). 의약품제조업(3522).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과 고무제품제조업(35+354).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3825). 자동차제조업(3843).
중임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33). 고무제품제조업(355)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35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제외(36). 철강산업(371). 비철금속산업(372).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381). 선박건조 및 수선업(3841).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을 제외한 기계제조업, 전기제외(382-3825).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385).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3832)
저임금 제조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31).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32).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34).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을 제외한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383-3832). 철도장비제조업과 모우터사이클 및 자전거제조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제조업 (3842+3844+3849). 기타 제조업(39).

자료 : 전게서

〈표 4〉 생산직 인력의 비율에 따른 분류

숙련요구 여부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숙련요구 제조업	식료 및 담배제조업(3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34). 의약품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용화합물제조업과 기타 화학제품제조업(351+352-3522). 의약품제조업(3522). 석유정제업과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과 고무제품제조업(353+ 354).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381).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3825).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3832).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3845).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385).
숙련비요구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32).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33). 고무제품제조업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제품제조업(355+35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제외(36). 철강산업(371). 비철금속산업(372).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을 제외한 전기 및 전자기기(383-3832). 선박건조 및 수선업(3841).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을 제외한 기계제조업, 전기제외(382-3825). 자동차제조업(3843). 철도장비제조업과 모우터사이클 및 자전거제조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제조업 (3842+3844+3849, 기타 제조업(39).

자료 : 전게서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러가지가 사용될 수 있으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연구개발투자집약도(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이다. 〈표 1〉은 연구개발투자집약도에 따른 기술수준별 산업분류이다. 1970년대 이후 첨단기술제조업은 고용에 있어서 계속적인 팽창을 거

듭한 반면, 중간기술제조업은 고용에 있어 정체상태를 유지해 왔고, 하위기술제조업은 고용의 감소를 경험해 왔다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까지 비중이 높았던 하위기술제조업의 고용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5〉는 1970년과 1991년에 첨단기술제조업, 중간기술제조업 및 하위기술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기술수준별로 분류된 제조업에서의 고용성장률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비중의 성장률이 아닌 절대고용량의 성장률이다.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된 국가에서는 특정산업의 비중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비교된 모든 국가들에서 하위기술제조업으로부터 중간기술 및 첨단기술제조업으로의 고용이전이 일어났다. 특히 하위기술제조업의 고용비율감소의 정도가 컸던 국가는 독일, 일본, 덴마크이다. 첨단기술제조업 취업자가 제조업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제조업 고용량의 성장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다. 이는 일본이 경제내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의 두드러진 감소 없이, 첨단기술제조업으로 제조업내에서의 고용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간기술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한 국가는 독일과 덴마크이다. 독일은 1991년을 기준으로 〈표 5〉에서 비교된 선진제국 중 제조업내에서 하위기술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고, 중간기술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독특한 이원적 교육체제를 통한 풍부한 양질의 중간기술인력을 배출하는 독일의 교육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는 1970년에는 〈표 5〉에서 비교된 국가 중 하위기술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그 후 비교적 성공적인 구조변화를 통해 1991년에는 네덜란드, 캐나다보다 하위기술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낮은 국가가 되었다. 덴마크의 하위기술제조업의 비중감소는 대부분이 중간기술제조업의 고용비중 증가에 의해 상쇄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증가를 기술수준별로 분류된 체계에서 살펴보면, 첨단기술제조업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제조업 고용은 연평균 4.1% 성장하였는데, 첨단기술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연평균 6.5% 성장하고, 중간기술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연평균 5.9% 성장한 데 비하여, 하위기술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연평균 2.7%의 성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1973년 제조업내 고용의 68.7%를 차지했던 하위기술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 50.6%로 떨어졌고, 1973년 제조업내 고용의 20.7%와 10.6%를 차지했던 중간기술제조업과 첨단기술제조업은 1996년에는 각각 31.2%와 18.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표 5〉 기술수준분류별 제조업 고용 구성비의 국제비교

(단위 : %)

	첨단기술제조업		중간기술제조업		하위기술제조업		제조업 전체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호 주	11.9	10.7	24.1	23.8	64.1	65.6		
	(-1.4)		(-1.0)		(-0.8)		(-0.9)	
캐나다	10.4	10.0	26.6	30.5	63.1	59.5		
	(0.6)		(1.4)		(0.4)		(0.7)	
덴마크	9.6	12.3	21.7	28.5	68.7	59.2		
	(0.6)		(0.7)		(-1.3)		(-0.6)	
핀란드	5.7	10.5	21.9	23.9	72.4	65.6		
	(2.1)		(-0.4)		(-1.2)		(-0.8)	
프랑스	14.0	18.4	28.3	30.6	57.7	51.1		
	(0.1)		(-0.8)		(-1.7)		(-1.1)	
독 일	16.5	20.1	27.8	34.3	55.7	45.6		
	(0.4)		(0.5)		(-1.5)		(-0.5)	
이탈리아	10.2	10.9	22.6	23.5	67.2	65.6		
	(0.0)		(-0.1)		(-0.4)		(-0.3)	
일 본	16.0	21.8	26.5	28.5	57.6	49.7		
	(1.9)		(0.8)		(-0.3)		(0.4)	
네덜란드	13.4	15.7	20.1	24.2	66.5	60.1		
	(-0.5)		(-0.4)		(-1.7)		(-1.2)	
노르웨이	6.6	9.9	19.2	26.2	74.2	63.9		
	(0.5)		(0.0)		(-2.2)		(-1.5)	
스웨덴	12.0	13.8	26.0	34.9	62.0	51.4		
	(0.5)		(1.3)		(-1.0)		(-0.1)	
영 국	16.3	19.4	30.5	31.3	53.2	49.3		
	(-1.4)		(-2.1)		(-2.6)		(-2.2)	
미 국	17.6	21.0	25.9	27.5	56.6	51.5		
	(0.7)		(0.2)		(-0.6)		(-0.1)	
한 국	10.6	18.2	20.7	31.2	68.7	50.6		
	(6.5)		(5.9)		(2.7)		(4.1)	

주 : 1) 한국의 통계는 1973년과 1996년 기준임. 한국의 수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필자가 계산. 1991년 이후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신분류에 의한 수치를 구분류로 전환하여 계산하였음.

2) ( )안의 수치는 연평균 절대 고용량의 증가율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DSTI/EAS Division). Papaconstantinou, G(1995), "Globalization, Technolog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Trends", *STI Review*, No.15, OECD로부터 편집하여 인용함.

〈표 6〉 특화성향 분류에 따른 제조업내 고용 구성비의 국제비교

(단위 : %)

	자원집약적 제조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규모집약적 제조업		공급특화적 제조업		과학기반적 제조업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호주 (-0.9)	29.0	34.0	24.2	21.1	12.6	9.5	29.0	30.0	5.2	5.5
	(-0.2)		(-1.6)		(-2.3)		(-0.8)		(-0.7)	
캐나다 0.7	29.4	26.9	23.0	22.3	13.5	13.1	30.5	33.6	3.6	4.1
	(0.3)		(0.6)		(0.6)		(1.2)		(1.3)	
덴마크 -0.6	33.1	29.8	22.4	18.3	18.9	23.3	23.3	23.5	2.4	5.1
	(-1.1)		(-1.5)		(0.4)		(-0.5)		(3.2)	
핀란드 -0.8	30.6	28.5	22.3	15.4	16.0	18.9	29.7	33.4	1.3	3.9
	(-1.1)		(-2.5)		(0.0)		(-0.2)		(4.5)	
프랑스 -1.1	20.8	22.4	27.5	20.0	16.7	19.2	29.6	30.5	5.3	7.9
	(-0.8)		(-2.6)		(-0.5)		(-1.0)		(0.8)	
독일 -0.5	20.6	20.5	23.6	17.4	21.7	24.2	28.7	31.0	5.3	6.9
	(-0.6)		(-2.0)		(0.0)		(-0.2)		(0.7)	
이탈리아 -0.3	25.3	23.2	36.0	35.8	13.4	14.5	21.6	21.9	3.6	4.6
	(-0.7)		(-0.3)		(0.1)		(-0.3)		(0.8)	
일본 0.4	23.1	21.1	25.7	20.4	22.3	26.0	24.9	26.9	4.1	5.6
	(0.0)		(-0.7)		(1.1)		(0.8)		(1.9)	
네덜란드 -1.2	27.8	27.6	23.6	16.1	18.0	19.6	27.5	32.0	3.2	4.7
	(-1.3)		(-3.0)		(-0.8)		(-0.5)		(0.6)	
노르웨이 -1.5	32.7	34.5	18.4	11.9	11.6	17.7	36.3	32.2	1.1	3.8
	(-1.2)		(-3.5)		(0.5)		(-2.0)		(4.7)	
스웨덴 -0.1	23.2	20.5	20.9	18.5	19.7	20.7	32.3	35.2	4.0	5.1
	(-0.7)		(-0.7)		(0.1)		(0.3)		(1.0)	
영국 -2.2	18.3	21.0	22.7	16.7	22.7	23.1	29.5	29.2	6.8	10.0
	(-1.6)		(-3.6)		(-2.1)		(-2.2)		(-0.4)	
미국 (-0.1)	21.6	20.7	24.0	19.2	19.0	19.4	27.7	30.0	7.8	10.7
	(-0.3)		(-1.2)		(0.0)		(0.2)		(1.4)	
한국 (5.8)	23.7	17	42.7	26.4	20.1	24.7	11.1	27.8	2.4	4.0
	(2.6)		(1.9)		(7.8)		(5.6)		(6.4)	

주 : 1) 한국의 통계는 1973년과 1996년 기준임. 한국의 수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필자가 계산. 1991년 이후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신분류에 의한 수치를 구분류로 전환하여 계산하였음.

2) ( )안의 수치는 연평균 절대 고용량의 증가율임.

자료 : 전게서.

〈표 7〉 임금수준 분류에 따른 제조업 고용 구성비의 국제비교

(단위 : %)

	고임금산업		중임금산업		저임금산업		제조업 전체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호 주	14.3	14.1	41.2	43.4	44.5	42.5		
	(-1.0)		(-0.7)		(-1.2)		(-0.9)	
캐나다	14.4	17.1	42.6	46.0	43.1	36.9		
	(1.6)		(1.1)		(0.0)		(0.7)	
덴마크	4.7	6.6	47.4	53.6	47.9	39.8		
	(1.1)		(0.0)		(-1.4)		(-0.6)	
핀란드	6.0	9.8	47.3	55.4	46.7	34.8		
	(1.6)		(0.0)		(-2.2)		(-0.8)	
프랑스	16.9	19.3	43.9	44.6	39.3	36.1		
	(-0.5)		(-1.1)		(-1.5)		(-1.1)	
독 일	13.7	18.4	51.6	53.1	34.8	28.5		
	(0.9)		(-0.4)		(-1.5)		(-0.5)	
이탈리아	12.0	12.2	39.7	42.7	48.3	45.2		
	(-0.3)		(0.0)		(-0.6)		(-0.3)	
일 본	11.3	13.8	48.2	50.5	40.5	35.7		
	(1.4)		(0.6)		(-0.2)		(0.4)	
네덜란드	11.5	15.2	51.3	56.1	37.2	28.8		
	(0.1)		(-0.8)		(-2.4)		(-1.2)	
노르웨이	6.1	10.1	53.9	55.2	40.1	34.7		
	(0.9)		(-1.4)		(-2.1)		(-1.5)	
스웨덴	10.4	17.5	55.6	55.0	34.0	27.5		
	(2.4)		(-0.2)		(-1.1)		(-0.1)	
영 국	15.0	16.8	51.0	51.0	34.0	32.1		
	(-1.7)		(-2.2)		(-2.5)		(-2.2)	
미 국	15.2	16.8	48.6	51.0	36.3	32.2		
	(0.4)		(0.1)		(-0.7)		(-0.1)	
한 국	8.7	15	31.8	43	59.5	41.9		
	(6.6)		(5.4)		(2.5)		(4.1)	

주 : 1) 한국의 통계는 1973년과 1996년 기준임. 한국의 수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필자가 계산
1991년 이후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신분류에 의한 수치를 구분류로 전환하여 계산하였음.
2) ( )안의 수치는 연평균 절대 고용량의 증가율임.

자료 : 전게서

〈표 8〉 생산직 인력비율분류에 따른 제조업 고용 구성비

(단위 : %)

	고숙련 제조업		저숙련 제조업		제조업 전체	
	1970	1991	1970	1991	1970	1991
호 주	41.7	48.5	58.3	51.5	(-0.9)	
	(-0.2)		(-1.5)			
캐나다	44.7	47.2	55.3	52.8	(0.7)	
	(1.0)		(0.5)			
덴마크	44.7	49.3	55.3	50.7	(-0.6)	
	(-0.1)		(-1.0)			
핀란드	39.5	50.5	60.5	49.5	(-0.8)	
	(0.4)		(-1.7)			
프랑스	40.5	46.6	59.5	53.4	(-1.1)	
	(-0.5)		(-1.6)			
독 일	40.9	45.1	59.1	54.9	(-0.5)	
	(-0.1)		(-0.9)			
이탈리아	32.1	35.0	67.9	65.0	(-0.3)	
	(0.1)		(-0.5)			
일 본	39.0	44.3	61.0	55.7	(0.4)	
	(1.0)		(0.0)			
네덜란드	56.9	64.2	43.1	35.8	(-1.2)	
	(-0.7)		(-2.1)			
노르웨이	44.1	52.4	55.9	47.6	(-1.5)	
	(-0.7)		(-2.2)			
스웨덴	41.9	48.2	58.1	51.8	(-0.1)	
	(0.5)		(-0.7)			
영 국	40.6	47.4	59.4	52.6	(-2.2)	
	(-1.5)		(-2.8)			
미 국	46.0	50.0	54.0	50.0	(-0.1)	
	(0.3)		(-0.5)			
한 국	34.1	34.6	65.9	65.4	(4.1)	
	(2.2)		(2.6)			

주 : 1) 한국의 통계는 1973년과 1996년 기준임. 한국의 수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로부터 필자가 계산
1991년 이후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신분류에 의한 수치를 구분류로 전환하여 계산하였음.

2) ( )안의 수치는 연평균 절대 고용량의 증가율임.

자료 : 전게서

기술수준에 따른 제조업의 분류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분류법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첨단기술제조업에 속하는 산업의 경우는 매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기술제조업과 하위기술제조업은 매우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기술수준에 따른 분류는 첨단기술제조업으로 특화하는 것이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첨단기술제조업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독일이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을 특화하였고 이탈리아가 섬유산업에 특화 한 예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중간기술제조업 혹은 하위기술제조업을 특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수출신장을 이룩하여 왔다.[1)]

이와 같이 특화하는 데 있어 국가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에 따라 제조업을 자원집약적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규모집약적 산업, 공급특화적 산업, 과학기반적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체계 중 공급특화적 산업은 급변하는 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다른 산업에 공급하는 부문으로 정의된다. 〈표 2〉는 특화성향에 따른 제조업의 분류체계이며, 〈표 7〉은 이러한 분류에 따른 제조업 고용구성비 및 성장률의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이다. 표에서 국가 밑에 쓰여있는 수치는 제조업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을 나타낸다.

호주를 제외한 표에서 비교된 모든 국가에서 1970년 이래 과학기반적 제조업의 고용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학기반적 산업은 과학적인 진보의 신속한 적용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도 과학기반적 산업은 비중은 1991년을 기준으로 10.7%의 수준이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특화적 공급산업은 캐나다, 일본, 스웨덴, 미국에서 고용증가가 있었으며, 노르웨이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규모집약적 산업의 고용은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본과 노르웨이에서 그 증가의 정도가 컸다. 자원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고용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1970년 이후 25%이상 고용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증가를 특화성향별로 분류된 체계에서 살펴보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특화적 공급 산업의 고용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과학기반적 산업과 규모집약적 산업의 고용증가도 높게 일어났고 자원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증가가 가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공급특화적 산업이 제조업내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1973년의 11.1%에서 1996년의 24.7% 수준으로 두배 이상 상승하였다. 제조업내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비중은 1973년 42.7%에서 1996년 26.4%로 격감하였고, 과학기반적 산업

---

1) *OECD,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Annual Review, 1992*

의 고용은 연평균 6.4%의 성장을 해왔으나, 1996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내 고용비중으로 비교할 때 선진국 수준에 매우 못미치고 있다.(<표 6> 참조). 고용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공급특화적 산업에서의 고용이 경기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급특화적 산업은 1980년 불황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으로, 제조업 고용이 4.8% 감소하였던 1980년에 14.5%의 고용감소를 경험하였다.

제조업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임금수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이다. 제조업내에서의 임금수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고임금 제조업에 속하는 부문이 다른 국가에서는 중임금 부문에 속할 수도 있다. 〈표 3〉의 임금수준에 따른 제조업 분류는 1985년의 9개국(호주, 캐나다, 필란드,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에 걸친 평균임금에 근거한다. 고임금그룹은 임금이 중앙치보다 15%이상 높은 산업으로 정의되고, 중임금은 중앙치의 15%이내의 산업으로, 그리고 저임금그룹은 임금이 중앙치보다 15%이하인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우리나라 제조업 내의 현재 임금구조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선진국의 형태를 띠게 될 시점의 제조업내의 임금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고임금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거나 고용감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91년을 기준으로 표에서 비교된 국가중 고임금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며 저임금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임금 산업의 고용비중은 서서히 증가해 왔으며, 고임금 산업의 고용비중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산업의 고용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고임금 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1.4%로 나타난 데 비하여 저임금 산업은 고용이 감소하였고, 미국도 고임금 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0.4%로 나타난데 비하여 저임금 산업의 고용은 연평균 0.7%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증가를 임금수준별로 분류된 체계에서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임금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7>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임금 산업으로의 이전은 주로 1990년 이후 일어났다. 1973년부터 1990년까지는 고임금 산업, 중임금 산업, 저임금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각각 7.5%, 7.6%, 4.2%로 나타나 중임금 산업의 고용증가가 가장 높았으나, 1990년 이후 고임금 산업의 고용만 연평균 4.1% 증가하고, 중임금 및 저임금 산업의 고용은 각각 연평균 0.5%, 2.2%씩 감소하였다. 1990년이후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제조업내 구조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각각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인력의 비율에 대

한 추정에 근거해서 저숙련산업과 고숙련산업으로 나누는 것이다. 〈표 4〉는 이러한 추정에 근거한 제조업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표 8〉은 이러한 분류방법에 근거한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이와 고용증가율에 대한 국제비교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숙련요구산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숙련산업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는데, 1973년부터 1990년사이에 연평균 6.1%의 고용증가를 보여 연평균 5.2%의 고용증가율을 보인 고숙련산업은 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990년 이후는 고숙련산업은 연평균 1.2%의 고용증가를 보였으나, 저숙련산업은 반대로 연평균 1.6%의 고용감소를 보였다.

〈표 9〉 생산관련직 부족률의 추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생산관련직 부족률	9.07	6.76	6.04	5.64	5.80	4.80	3.88

자료: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10〉 직종대분류별 부족률 현황

	전 체	전문기술직	사무관련직	판매서비스	생산관련직	단순노무직
1997	2.44	1.50	1.23	1.56	3.88	1.95

자료: 전게서

이와 같이 1990년 이후 고숙련 제조업으로의 고용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생산관련직 부족률이 〈표 9〉에 나타나 듯이 1991년 9.07%의 정점에 이른 후 격감한 주요한 원인이다. 비록 생산직 부족률이 1996년의 4.8%로 떨어지긴 했지만 〈표 10〉에 나타나 듯 아직도 직종별 인력부족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생산직인력의 비율이 높은 저숙련 요구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3.2. 기업규모별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특징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3〉은 기술수준, 특화성향, 임금수준, 생산직 인력비율에 따라 제조업을 분류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1973년부터 1996년까지 대기업의 고용은 연평균 1.6% 성장하였는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은 연평균 5.9% 성장하였다.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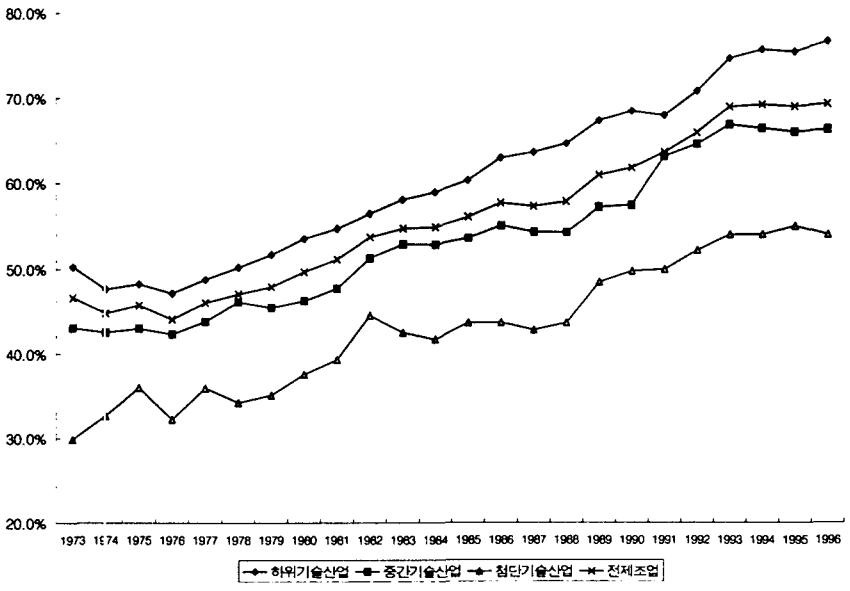
1973년 46.6%에 지나지 않았던 제조업 고용 중 중소기업 고용의 비중은 1996년에는 69.2%로 증가하였다. 기술수준에 따른 분류에 의한 고용구조변화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하위기술제조업의 고용은 연평균 0.6% 감소했는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는 4.6% 증가하였다. 이 결과 1996년 하위기술제조업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인데 비하여, 중간기술제조업에서는 66.2%, 첨단기술제조업에서는 54%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화성향별로 살펴본 고용구조의 변화 역시 동기간 중 기업규모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는 연평균 4.5%의 고용성장을 기록했지만,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연평균 3.4%의 고용감소를 기록했다. 자원집약적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3.8%로 나타나고, 대기업은 고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 밖에 공급특화적 산업, 규모집약적 산업 및 과학기반적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성장률이 10.6%, 7.6%, 7.5%로 나타나고 대기업의 고용성장률은 5.2%, 3.2%, 3.4%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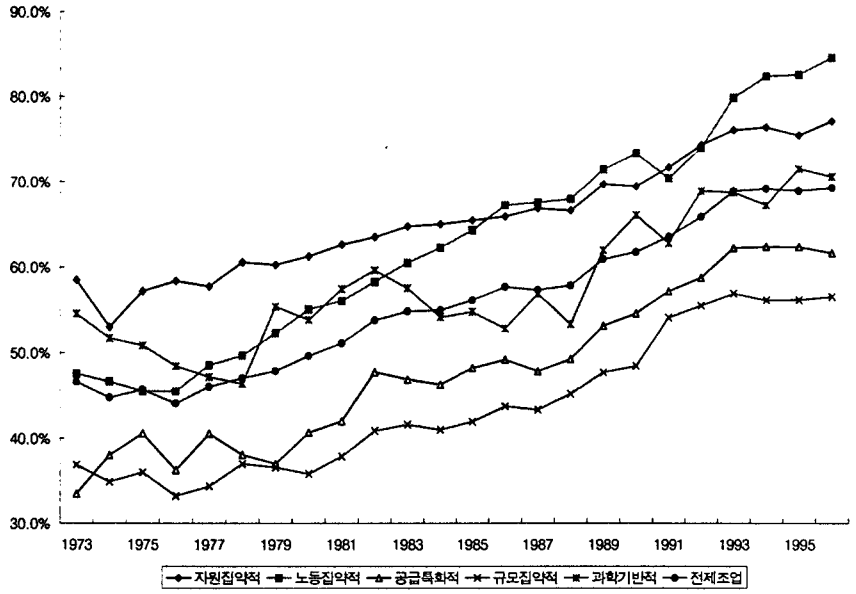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로 중소기업의 고용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의 47.5%에서 1996년에는 84.5%로 급증하였으며, 1996년을 기준으로 공급특화적 산업, 규모집약적 산업의 고용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61.6%와

〈그림 3〉 상이한 분류기준에 따른 제조업 고용 중 중소기업 고용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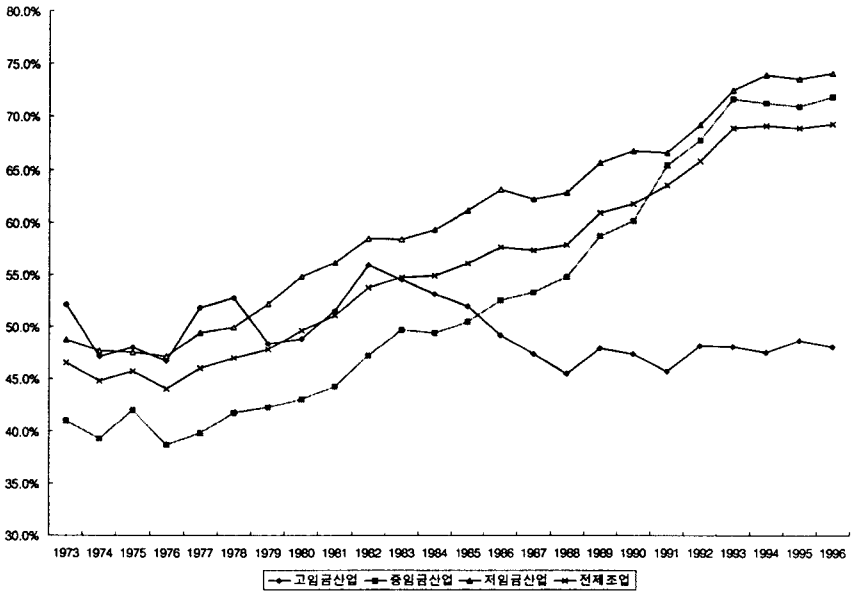
1) 기술수준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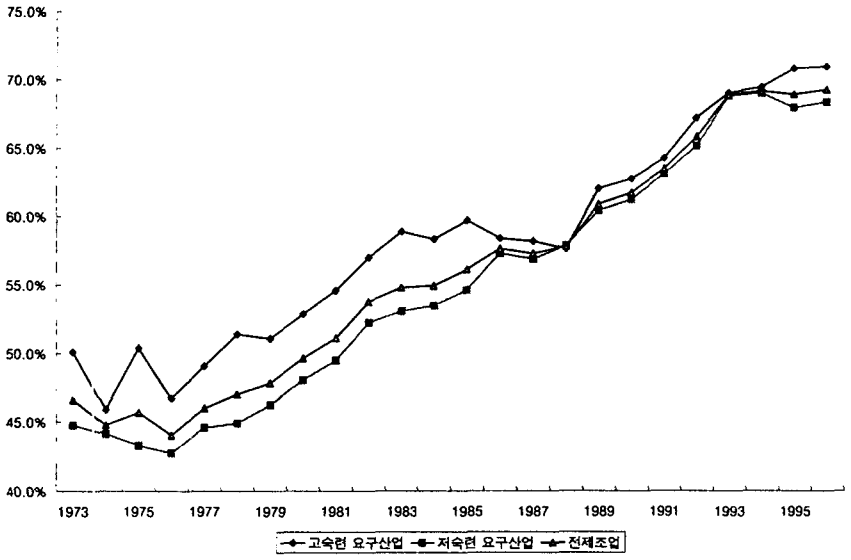
(2) 특화성향에 따른 분류



(3) 임금수준에 따른 분류



(4) 생산직 비율에 따른 분류



56.5%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자원집약적 산업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을 기준으로 77.1%로 동년 제조업 전체 고용 중 중소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인 69.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반적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년간 변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이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6년에 과학기반적 산업 고용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로 제조업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에 의한 분류에 따라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저임금 부문의 고용창출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어나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임금 부문에서 1973년부터 1996년까지 대기업의 고용은 연평균 0.5% 감소하였는데 비하여 중소기업은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1.6%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저임금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에서 74.1%로 증가한다. 이에 비해 고임금 제조업의 고용창출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 1973년부터 1996년까지 대기업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1.6%로 중소기업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인 5.8%의 ⅓에도 못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고임금 부문의 경우 대기업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고임금 제조업의 고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의 52.2%에서 1996년의 48.1%로 줄어들었으며, 저임금제조업의 고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48.8%에서 1990년 74.1%로 급증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

〈표 11〉 제조업내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의 추이

(단위 : %)

	198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6
제조업내 중소기업의 상대임금 (대기업 임금=100)	80.2	75	72.2	66.3	67.2	65.9	643	61.9

자료 : 통계청, 광공업 통계 조사보고서, 각년호

〈표 11〉은 대기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상대임금 변화추이이다. 1980년에 대기업 평균임금의 80.2% 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1989년에는 66.3%까지 떨어졌으며 그후 1991년에 67.2%로 증가하였다가 또 다시 감소하여 1996년에는 6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은 같은 동일 제조업내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하락했다기 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임금 부문의 제조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과 관련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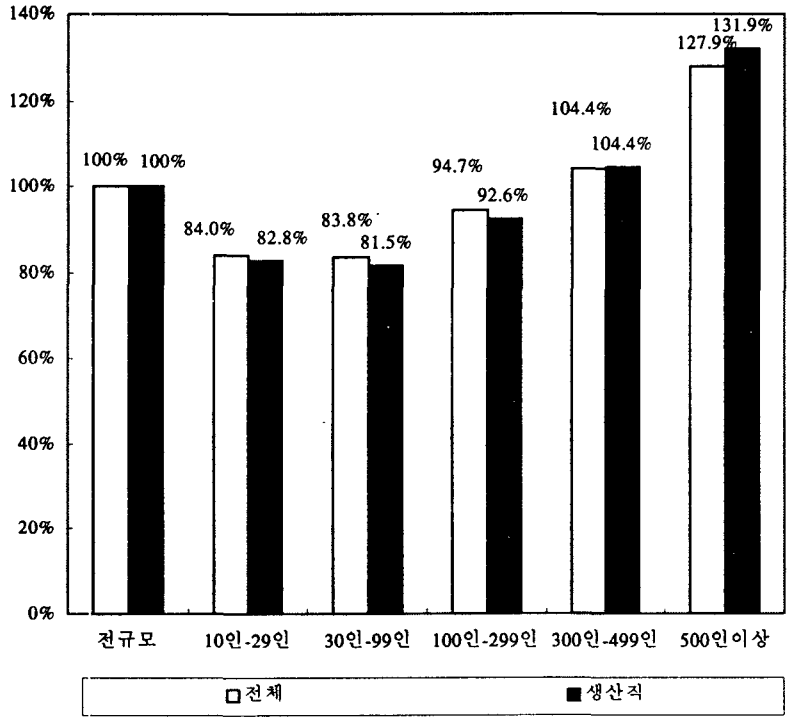
생산직 인력 비율로 분류된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다른 분류 기준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구조 변화의 방향이 같게 나타난다. 1973년부터 1990년까지의 고용구조변화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숙련요구제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숙련비요구제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고용감소가 숙련비요구산업 위주로 진행되었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가 숙련비요구산업에서 주로 일어나 대기업에서는 숙련요구산업의 고용비중이, 중소기업에서는 숙련비요구산업의 고용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생산직 인력을 많이 사용하는 숙련비요구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생산직인력의 부족률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을 가중시켜온 주요한 이유이다. 즉 대기업의 고용구조가 생산직 인력을 적게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지는 않았으며, 동시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임금 부문의 고용은 줄이면서 고임금 부문의 고용은 늘려가는 형태로 변화하였다.[2] 이는 대기업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높이면서 생산직에 대한 수요는 줄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서, 생산직에 대한 대기업의 상대임금 수준을 높여 고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을 가중시켰다.[3]

---

2)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설명한 이론으로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보상임금이론(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노동조합의 위협효과(union threat effect), 대기실업가설(wait unemployment theory), 독과점 시장 가설,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등이 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은 김대모 · 유경준(1996)을 참조.

〈그림 4〉는 제조업내의 규모별 상대임금 지수를 전직종과 생산직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생산직에서의 규모별 임금격차가 전직종에 대한 규모별 임금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생산직에서 더욱 열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고용창출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마찬가지로 생산직의 비율이 높은 숙련비요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이 투자확대를 포기한 하위기술제조업, 노동집약적제조업, 저임금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고용확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제조업내 기업규모별 상대임금지수 : 1995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7

3) 어수봉 · 이태헌(1992) 등 기존의 연구는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를 기업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임금산업에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산업별 분포효과 역시 기업간 임금격차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어

본 논문은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와 고용증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구성적 구조조정지수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제조업내 구조조정의 속도와 고용증가간에는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조업 부가가치의 구성비의 변화속도가 빠른 국가의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속도와 고용증가율간에 뚜렷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술수준, 특화성향, 임금수준, 생산직 인력 비율 등의 기준으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살펴본 제조업 구조변화의 특징은 우선 상당한 첨단기술산업, 공급특화적 산업, 고임금 산업, 숙련요구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제조업내 열악한 부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에 있어서 선도자와 후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대기업이 생산규모를 줄인 결과로 발생한 잔여수요를 두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에 따른 경우가 많다. 반면 산업의 도입기에 지식·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은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집약화가 매우 미비하였으며, 열악한 부문(하위기술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저임금산업 등)에서 중소기업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생산직 인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특화하고 있음이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부문으로 이전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조업 고용구조변화가 대기업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높이면서 생산직에 대한 수요는 줄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서, 생산직에 대한 대기업의 상대임금 수준을 높여 고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을 가중시킨 것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다. 대기업이 생산직을 집약적으로 쓰는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직인력에 대한 임금부담을 낮춰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IMF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증가와 대기업의 고용조정은 실업의 급증이라는 커다란 문제

를 낳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화시키는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상원, 「기술변화와 고용」,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2. 김대모, 유경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원인과 과제 -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실태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19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6.7.
3. 김장호, 「자동화 기술혁신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
4. 박성택, 「생산자동화의 고용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1991.2.
5. 박준경, 김정호,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12.
6.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의 장기 비전 및 과제」, 1995.6.
7. 어수봉,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 80년대 취업구조 및 고용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991.6.
8. 어수봉, 이태헌,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 제3집, 한국노동연구원, 1992.
9. 이주호, 「중소제조업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KDI정책연구, 제17권 3호,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 가을.
10. G. Papaconstantinou, "Globalization, Technology and Employment : Characteristics and Trends," *STI Review*, No. 15, OECD, 1995.
11. Meyer-Krahmer, "The Effect of New Technologies on Employment", *Economics of Innovation and Technical Change*, Vol. 12, 1992.
12. OECD, 「Microelectronics, Robotics, and Jobs」, 1982.
13. OECD,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 Annual Review」, 1992.
14. OECD, 「The OECD Jobs Study - Facts, Analysis, Strategies」, 1994.
15. OECD,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Vol. 2 Analytical Report」, 1996.
16. Richard M. Cyert and David C. Mowery, ed., *Technology and Employment - Innovation and Growth in U.S. Economy*, National Academy Press, 1987.
17. Sakurai, "Structural Change and Employment: Empirical Evidence for 8 OECD Countries", *STI Review*, No. 15, OECD, 1995.